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1월 7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1장 1절

설교제목 :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질문에 대하여 족보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적 문화, 즉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계보입니다.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에게 계보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가 사용된 것이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발점에 사용되었습니다.(창2:4) 그리고 인류의 시발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창5:1) 그리고 마태복음 1:1에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계보가 갖는 신학적인 의미는 새 시대를 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계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함으로써, 예수께서 세계와 인류의 시작과 버금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계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습니다. 족보의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17절이 인클루시오 기법입니다. 따라서 계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입니다.(창13:14-15/갈3:15-16)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인간의 수많은 반역과 불순종을 뚫어내고 성취된 것입니다. 수 천년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까지 46명이 등장합니다. 그 족보 안에는 수 천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예수께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약속입니다. 그 태고의 작정하심이 파손됨이 없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수를 열네 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꼼꼼히 세어본 자들은 14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수적인 카운트가 아닙니다. 보통 ‘겐나오’, ‘낳다’란 단어를 기준으로 대수를 카운트 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세어보면 13대 밖에 없습니다. 1대를 덧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는 대상3:10-17에 보면, 최소한 18대가 되어야 하는데, 아하시야, 요하스, 아마샤, 여호야김의 이름이 생략되었습니다. 4명을 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는 14대가 아니라, 겐나오가 13대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14대가 아닙니다. 이처럼 마태의 관심은 산술적인 14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선, 보통 일반적으로 10이 완전수인데, 10보다 더 완전한 수가 14입니다. 7이란 완전수에 2를 곱하면 14입니다. 14는 더 완전한 수입니다. 따라서 14, 14, 14가 세 번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시점에 예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족보에 다윗이 강조되어 있는데, 14란 숫자는 다윗의 이름의 수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달렛트 바브 달레트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게마

트리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달렛트는 숫자로 4를 가리키고, 바브는 6이고, 달렛트 역시 4입니다. 다비드란 이름을 게마트리아는 4+6+4 즉 14입니다. 따라서 14란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서 주목할 것은 패턴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서술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는 것이 4번입니다.(3-6절)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들의 출신은 다 이방여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 라합도, 여리고 출신의 가나안 여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밋세바인데, 마태가 밋세바의 이름을 몰라서입니까? 밋세바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아는 헷 사람으로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방인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이고, 라합은 창녀이고, 룻은 재혼하고, 재혼하기도 전에 외간 남자의 이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하고 재혼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마1:21)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큰 이탈은 16절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가 가장 보편적인 족보서술인데, 앞서, 4명의 여인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라는 패턴으로 이탈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패턴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 답이 1:18-25 절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살펴보고,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셨습니다.(고후4: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즉 우리의 자손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한 해 우리가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마1:1이 계보 즉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로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의 계보를 14 대로 맞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누구인지 설명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전달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이어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올 한해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